

# 제자 기획·스승 연주 '사제 동행'

ACC서 4일 '최현호 피아노 독주회'

'아르플레닛' 최혜지 대표  
대학원 지도교수 공연 기획  
호남예술제 최고상 출신  
'헨델' 테마 레퍼토리 구성



피아니스트 최현호 제자 최혜지 씨

"이번 공연을 기획한 아르플레닛 최혜지 대표는 수년 전 대학원 지도학생으로 만난 제자입니다. 학교 안에서는 전문 연주자의 길을, 밖에서는 프로 기획자의 길을 걷고 있는 다재다능한 학생이죠. 피아노를 연주할 때마다 보여준 재능이 '공연 기획'에서는 어떻게 발휘될지 기대가 됩니다."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의 공연을 기획해 무대에 올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로베르트 슈만과 요하네스 브람스처럼 출판지예의 관계를 쌓는, 나아가 '사제동행(師弟同行)'의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공연기획자와 피아니스트가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전남대 음대에서 강의 중인 피아니스트 최현호와 그의 음악적 제자 최혜지(아르플레닛 대표·피아니스트) 씨. 이들은 오는 8월 4일 오후 7시 '최현호 피아니스트 독주회'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극장2)에서 펼칠 예정이다.

호남예술제 최고상 출신인 최현호는 광주 예고 음악과 및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재학 중 보스턴 뉴잉글랜드음악원에 입학해 석사과정을 마쳤다. 현재 서울대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전남대, 세종대, 계명대 등에 출강 중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전남대 음대 대학원에서 피아노 전공 지도교수와 제자 관계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최 씨가 클래식 공연기획단체 '아르플레닛'을 창단하면서 이번 공연이 성사된 것. 아르플레닛은 ACC 창단연주회를 비롯해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북구문화센터 등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쳐 왔다.

최 씨는 "연주실력과 티칭 능력으로 학부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최현호 교수님에게 지도받고 싶었는데, 지도교수 배정이 확정된 순간 길거리에서 '쫓겨' 뿔 만큼 기뻐했다"며 "선생님의 무대를 직접 기획했다는 점, 아르플레닛이 진행하는 첫 독주회라는 점에서 이번 공연은 의미를 남긴다"고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엄연히 공연 기획자와 아티스트 관계지만, 그에 앞서 두 사람은 '사제 기간' 이기에 저간의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궁금했다.

최 씨는 "피아노 연주에 슬럼프를 겪고 있던 시기에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칭찬, 첫 레슨의 감동이 아직 남아있다"며 "중요한 실

기시험이 있으면 개인 시간을 할애해 서울에서 광주까지 찾아와 티칭해줄 정도로 감사한 기억이 많다"고 했다.

최 씨는 사랑니를 뽑아서 통통 부은 볼로 레슨을 받았던 일, 실기시험 3일 전에 독감에 걸려 대회 출전에 지장이 없도록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함께 뛰었던 일, 실기시험 하루 전날 손목이 부러져 영영 울었던 일 등 희로애락이 담긴 경험들을 풀어냈다. 그런 역경을 함께 견뎌왔기에 오늘 무대가 성사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다.

한편 헨델 모음곡 'B플랫장조 HWV 434'로 시작하는 이번 독주회는 '슈만 소나타 2번', '스크리아빈 소나타 2번', '헨델 마뉴에트 G장조' 등으로 이어진다.

브람스 '헨델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등도 올려 펼칠 예정이다. 이번 연주회에 유독 '헨델' 곡들이 눈에 띄는 이유는 최현호 피아니스트가 최근 작곡가 리스트를 테마로 독주회를 마쳤기에, 중복되지 않는 음악가 중 헨델에 천착해 레퍼토리를 구성했다고 한다.

최 대표는 "음악적 스승으로서 그동안 예술의 길을 열어준 피아니스트 최현호 초창기연주회를 기획하고 선보여 감회 깊다"며 "앞으로 대학원 졸업 리사이틀을 성실히 준비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에 비해 클래식 관람 기회가 적은 지역에서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피아니스트 최현호는 KBS교향악단과 협연했으며 호신음악콩쿠르·광주음악협회콩쿠르 1위, 한국 리스트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바 있다. 독일 브레머하펜 필하모니와 협연했고 한국피아노학회, 광주피아노 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동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네이버 폼 예약 필수(미취학 아동 입장 불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국악의 '흥' 춤춘다

전통문화관 '이은숙 판소리·성유미 산조' 3일 서석당

청년 국악인들의 판소리, 산조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이은숙 판소리·성유미 산조' 공연을 오는 8월 3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판소리 '심청가' 주요 대목들부터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소리꾼 이은숙의 강산제 이임례바다 '심청가' 중 '심봉사 황성 올라가는 대목·방아타령 심봉사 눈뜨는 대목'으로 시작한다. 생동감 넘치는 전통의 맛이 깃든 작품이 관객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장단은 김준영(민속타악연구회 대표)이 맡을 예정이다.

이은숙은 광주시 무형유산 제14호 판소리 '심청가' 예능보유자인 이임례 씨의 딸로, 제24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전국판소리교수경연대회에서 명창부 대통령상 등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남도 민요경창대회에서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울러 성유미의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무대도 볼 수 있다. 신쾌동류는 거문고 명인인 '신쾌동'이 스승인 백낙준의 산조를 다듬어 새로 만든 거문고 산조이며, 역동적 시김새와 호탕한 오른손 술대법 등이 특징이다. 주선율은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휘모리 등 여섯 악장으로 구성돼 있다.

전남대 국악학과를 졸업하고 나주시립국악단 비상임단원 등을 역임한 성유미는 진도국악고 강



이은숙 성유미

사, 전북도립순창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 거문고 강사 등으로 활동했다. 제35회 목포국악경연대회에서 일반부 기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거문고 독주회 '승풍파랑'을 개최했다. 장단은 전남도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이수자인 안상용 씨가 맡는다.

전통문화팀 송현민 담당은 "이 밖에도 전통문화관 일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토·토·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절기관련 체험이나 민속놀이, 연희놀이 등이 펼쳐진다"며 "야외무대에서 전통예술 상설 공연을 즐기고, 민속놀이 등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시로 소환한 '사라져 가는 것들'

임경렬 시인 '파랑새가 떠나간 서넛' 펴내

영산강 일대는 유명한 누정들이 많다. 특히 내로라하는 당대 문사들은 누정을 중심으로 시문을 짓고 교류하며 풍류를 즐겼다. 풍영정, 면양정, 호가정, 영모정, 장춘정, 벽루정 등 영산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누정은 오늘날에도 많은 문인들에게 창작의 모티브를 제공한다.

나주문화원장을 역임한 임경렬 시인이 최근 펴낸 시집 '파랑새가 떠나간 서넛'(문학들)에는 나주 인근의 누정들을 노래한 시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영모정, 장춘정을 비롯한 유서 깊은 누정들은 잔잔한 시적 정서를 선사한다.

나주 회진 출신의 시인에게 영산강과 일대 펼쳐진 정자들이 자연스레 시적 창작의 소재가 됐음은 불문가지다. 누정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실제적인 모습 외에도 심미적인 아름다움과 사유를 제공한다.

임경렬 시인은 "이번 시집에는 고향인 나주 회진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공간 등과 연계된 작품들이 다수 있다"며 "오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새롭게 이어가기 위한 사유 등을 창작의 동인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아름드리 느티나무여/ 햇살로 추억을 데우는가 // 마르지 않는 강물이며/ 술잔에 깃든 달빛이 그리워져 찾아드는가// 조각배 드나들던/ 안개 낀 사안나무 옛터는 묘연한데/ 정자는 고색의 비위를

사이에 건재하구나..." '장춘정(藏春亭)에 머문다'는 다시면 죽산리에 있는 누정 장춘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장춘정은 1561년 류중정이 관직을 사직하고 내려와 지은 정자로 내로라하는 문사들이 숭순을 비롯해 임영락, 박순, 기대승 등이 찾아와 인문활동을 펼쳤다.

회자는 장춘정 앞 유유히 흐르는 영산강을 바라보며 심상을 풀어낸다. 느티나무, 강물, 사암나무, 달빛 등은 고전적이면서도 자연적인 소재들이다. 예전에는 조각배가 드나들었듯 강물 앞을 담담히 바라보며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김동하 소설가는 추천사에서 "임경렬 시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존재들을 호명하며 현재로 불러낸다"며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이름에 담긴 역사 전부를 불러내는 행위"라고 평한다.

한편 임 시인은 광주대 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전남대 대학원 호남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4년 '발견'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통적 가치 지닌 종가, 콘텐츠화 필요"

서해숙 남도학연구소 대표 강연

오늘날 가문, 종가와 같은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가문과 종가에 깃든 나눔과 베품, 전통미풍양속에 대한 실천과 계승은 여전히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최근 광주 종가와 관련된 문화에 대한 강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광주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이 '광주천년의 국가유산 돌보기' 일환으로 진행한 강좌에서 서

해숙 남도학연구소 대표가 '광주 종가의 현황과 제례문화'를 주제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서 대표는 "가문의 상징, 대표 의미를 담고 있는 종가의 역사성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점차 희석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나눔과 베품의 실천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지닌 종가에 대한 관심과 콘텐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에서 서 대표는 종가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했다. 주요 내용으로 학문적 성취물로서의 '기록 문화', 정신을 강조하는 가훈·일가편지 등의 '규

범문화', 고택·사당·서원·정자·재실 등의 '건축 문화', 선비정신을 담고 있는 '생활 문화', 종회와 족계 등의 '조직문화' 등이 소개됐다.

특히 행주기씨 고봉종가와 제봉종가의 제례문화는 물론 제례음식과 종가음식의 변천 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서 대표는 "종가는 문화유산의 종합체이자 한국의 전형적인 인식의 산물"이라며 "역사적 배경 외에도 다양한 삶의 이야기, 문헌자료 등이 남아 있어 재해석이 가능한 핵심 공간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서구문화원의 2024 문화유산 아카데미는 오는 11월까지 강의와 답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